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

순창군, 7733부대 3대대와 협정… 최영일 군수, 예비군훈련장 체험도 진행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7733부대 3대대와 순창지역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 7733부대 함성규대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정식의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극복에 필요한 자원지원과 정보전파, 상황관리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733부대 3대대는 순창·남원지역의 안정화를 위하고 순창기지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순창군민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3대대의 복구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협정식을 통해 순창지역의 재해·재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7733부대 3대대와 순창지역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정식에 앞서 최 군수와 신 의장은 부대인근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시설을 견학하고 영상 모의사격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군수는 전북 지자체장 중 최초로 이곳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하고 훈련을 체험한 지자체장으로서 앞으로 순창군과 7733부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전망케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과 3대대 간의 재난협력체계구축 협정식은 지역방위를 넘어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의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순창을 위해 노력하는 부대원의 사기진작과 예비군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강당에서 150명의 7급 이하 MZ세대 직원들을 격려하고 남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7급 이하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강당에서 150명의 7급 이하 MZ세대 직원들을 격려하고 남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주제로, 안순엽 기획실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설명과 민원과장의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방법 안내, 시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남원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시장과 타부서 직원이 함께 고민하는 등 남원시의 미래를 함께 그렸으며,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공유는 시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남원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보고회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기획 예산실장, 합동평가 관련 담당 계장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 예산실 총괄 보고, 부서별 관련 합동평가 지표의 추진경과, 부진사유, 향후 대응 방안,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공유해 순창군의 실적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매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은 지난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6,2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정량지표 51개, 정성지표 20개 등 총 71개 지표에 대해 1년간의 사업 추진실적을 전북 합동평가관리 시스템(JVPS)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실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 부군수는 "전 부서가 함께 총력을 다해 평가 준비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가을을 맞아 계절 꽃 식재 사업으로 시가지 주변 회전교차로 및 꽃박스 1,129개와 9개소의 화단을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임실 곳곳 가을꽃 '형형색색'

시가지 내 국화꽃 심어 · 치즈테마파크에 구절초 동산 조성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임실군 전역이 가을꽃으로 형형색색 물들어가고 있다.

군은 가을을 맞아 계절 꽃 식재 사업으로 시가지 주변 회전교차로 및 꽃박스 1,129개와 9개소의 화단을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계절 꽃 식재 사업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를 주요 도로변과 임실교차로에 심어 계절의 변화에 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교통섬에 원형화단은 차량 통행객들의 시야 확보 및 삭막한 도로환경에 다양한 꽃 식재로 생기를 불어넣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치즈축제가 열리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치즈축제 시기에 맞춰 천만송이 국화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구절초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치즈테마파크 전망대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과 서바이벌장 뒤편에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힐링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구절초 동산을 조성했다.

바람의 언덕 일대의 구절초 동산에서 형형색색의 국화꽃과 함께 어우러진 새하얀 구절초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또한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나무 사이의 산책로와 전망대에 벤치를 제공해 편안한 녹색 쉼터를 제공한다.

오는 7일부터 4일간 3년 만에 열릴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와 상관없이 평일과 주말에 50여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가을엔 임실치즈테마파크'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은 데는 민선 6기부터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의 명성과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답고 세심해진 국화꽃 경관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실N치즈축제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테마파크를 찾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가을날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신덕면 오염토양대책위와 간담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지난달 30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행정, 그리고 신덕면 오염토양 대책위원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신덕면 오염토양 시설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과 주민과의 오랜 갈등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행정?의회?민간단체가 협치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자고 협의했다.

이성재 의장은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일정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남원시가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395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 2차 교육을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충2차 교육대상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스마트민방위)에 접속해 교육(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체교육 인정자와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며,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보충 2차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다슬기 방류행사

임실군이 자연보호 임실군협의회와 함께 관촌 사선대에서 다슬기 방류 및 섬진강변 정화 활동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임실군 관내 환경단체인 '자연보호 임실군협의회'는 1976년 설립된 이후 매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천 정화 활동과 생태계 환원을 위한 치어 및 다슬기 등 방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과 환경단체 회원 약 50명 정도가 관촌면 사선대 부근 섬진강에서 다슬기 약 150kg를 방류하고, 이후 정화 활동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자연보호 임실군협의회는 자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올해 10월경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제44주년 자연보호 전라북도 헌장선포 기념식도 계획 중에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